

은행 AI 도입·디지털 금융 확산에 1년새 점포 91곳, 인력 909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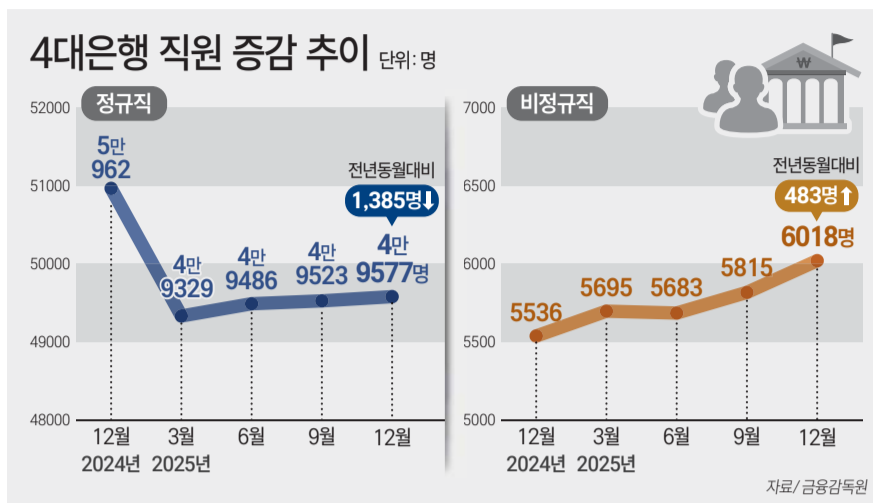
작년 말 4대 은행 점포수 2688개
정규직 직원 줄어 비정규직 채용
당분간 점포·인력 감소 이어질 것
글로벌 금융권, 인력감축 본격화

은행들이 영업점포(지점·출장소)를 줄이면서 인력도 함께 감축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면 영업의 필요성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 AI가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은행권의 인력 구조 변화도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영업점포수는 지난해 말 2688개로 1년 전과 비교해 91곳 줄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신한은행으로 1년 새 43곳을 잃었다. 우리은행(28곳), KB국민은행(26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점포 감축과 함께 임직원 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 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임직원 수는 5만5725명으로 전년 대비 909명 줄었다. 특히 정규직 직원은 1385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483명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점포와 인력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인터넷뱅킹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영업점 방문 수요가 줄어든 데다, AI를 활



용한 고객 상담과 여신 심사, 내부통제 업무 자동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AI 도입에 따른 인력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2월 AI가 "일 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도 일부 직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주니어 애널리스트 채용 규모를 최대 3분의 2까지 축소하는 대신 AI 인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거래 검증과 리스크 관리 등 중간지원 업무(Middle Office)가 AI 자동화에 취약한 영역으로 꼽히면서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은행권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은행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상담서

비스와 여신 심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 확대와 AI 기반 업무 자동화가 맞물리면서 점포 운영 효율화와 인력 재배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AI가 모든 금융 업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관리와 투자 자문, 기업금융 등 고도의 판단과 고객 신뢰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업무는 AI가 상당 부분 대체하겠지만 고객 맞춤형 자문과 의사결정 영역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는 인력 감축보다 직무 재편과 재교육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우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metro

軍 훈련소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한다

금융위, 최대 4000만원 목돈 마련
만 19~34세 청년, 일반·우대형 운영

이달 말부터 오는 8월까지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을 진행하는 '청년미래적금'이 해당 기간 동안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 장병 및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도 계좌개설을 지원한다. 군 장병을 위해 운영되는 군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가입하면 최대 4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을 3년 동안 적립하면 만기시 최대 2200만원(우대형 기준)을 받을 수 있는 적금형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소득 수준과 근로지의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 운영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국내은행의 모바일뱅킹에서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지만, 군사훈련에 참여 중인 장병 및 직업군인의 경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국방부의 협약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입신청 기간 및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는 계좌개설 기간 동안 청년미래적금 가입

을 희망하는 훈련생들이 비대면 가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및 계좌개설이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되는 만큼, 해당 기간에 훈련소에 입소하는 군 장병 및 직업군인의 경우 사전에 가입희망 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앱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하지만, 군 장병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하는 만큼 일반형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구간은 직전 구간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입영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면 입영 당해에는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복무 초급근부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장기간부도야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군 상품과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육군(18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비씨카드, 학원비·쇼핑 결제시 할인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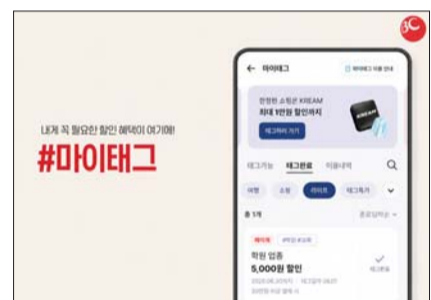
30일까지 '마이태그' 이벤트

비씨카드는 이달 30일까지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 '마이태그'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 밝혔다. 마이태그는 생활 금융 플랫폼 '페이북'에서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고, 비씨 개인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이벤트는 학원비, 쇼핑, 외식, 간편결제 등 일상 소비 영역 전반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비씨카드 회원사 발급 카드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학원 업종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학원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온·오프라인 쇼핑 혜택도 강화했다. 네이버페이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쿠팡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0.5% 할인을 하루 1회씩 총 3회 지급한다. 이달 8일부터는 한정판 거래



비씨카드 6월 마이태그 이벤트 관련 이미지.

플랫폼인 크립이 마이태그에 추가된다. 10만원 이상 결제 시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도 있다. 다이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원 할인 혜택을 최대 5회까지 제공한다. 편의점 업종에서는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할인해 준다. 커피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말에 더네틀티·매머드커피·메가MG C커피·컴포즈커피에서 5000원 이상 결제 시 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개인당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문화·여가 혜택도 마련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수도권 서세권·비규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서틀버스+역세권)

지난달 경기 아파트거래 신고가 비중 분당 28%, 하남 21%, 구리 21% 순 수도권 신고가 9.7%, 올해들어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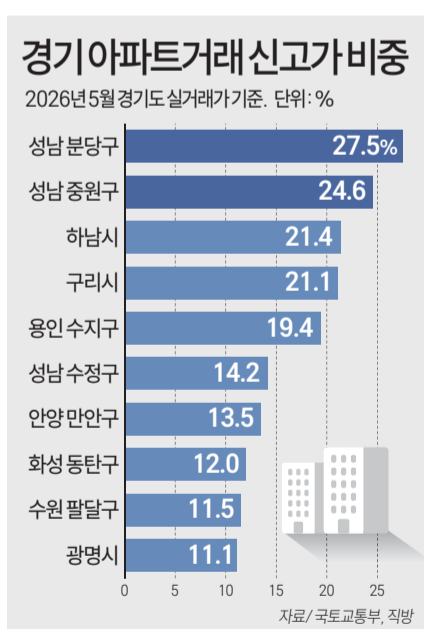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좋은 비규제 지역과 반도체 '서세권(서틀버스+역세권·대기업 통근 서틀버스 정류장 인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은 물론 높아진 호가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5월 경기도 아파트 거래에서 신고가 비중은 성남시 분당구가 27.5%로 가장 높았으며 ▲성남시 중원구 24.6% ▲하남시 21.4% ▲구리시 21.1% ▲용인시 수지구 19.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구리가 5년 중 한 건이 신고가로 거래되면서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경기도에서도 규제 지역 지정을 피한데다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과 노후 단지 재건축 기대감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서세권인 용인 수지구와 화성 동탄구도 작년 대비 신고가 비중이 각각 16.1%포인트(p), 11%p 높아졌다. 특히 동탄은 지난 반년간 신고가 비중이 계속 상승했다.

직방 관계자는 "동탄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캠퍼스와 ASML 화성캠퍼스 등이



위치한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벨트의 주요 배후 주거지"라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주거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최근 삼성 전자 노사 임금협상 타결로 주택대출 지원 확대가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도 관련 수요 유입 가능성에 관심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고,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며 "여기에 지난달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두고 급매물들이 시

장에 나오면서 신고가 거래 비중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올해 2월 31.3%까지 올랐던 이후 3월 25.1%, 4월 21.3%, 5월 19.3%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권 신고가 비중은 줄었지만 영등포와 동작, 동대문 등은 신고가 거래가 더 늘었다.

강남구 신고가 비중은 19.3%로 전년 동기 대비 31.1%포인트 낮아졌고, 서초구(33.8%, -14.3%p)와 용산구(26.4%, -9.0%p) 역시 감소 흐름을 보였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 현금 동원력이 필요한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됐다.

반면 영등포구(41.2%)·동작구(35.3%)·동대문구(31.8%)는 신고가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0%포인트 안팎이나 그 이상 상승했다. 이들 지역의 5월 신고가 거래 평균 가격은 영등포구 12억9000만원, 동작구 15억원, 동대문구 11억1000만원으로 주로 10억~15억 원대 거래가 중심을 이뤘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 실수요가 집중되는 데다 강남권보다 대출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격대라는 점이 신고가 거래 증가로 이어졌다"며 "다만 5월 거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거래 신고가 추가로 반영될 경우 현재 집계된 신고가 비중과 지역별 흐름에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 화공플랜트 수주

가스처리시설 설계·구매 역무

현대엔지니어링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화공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를 확보하며 신규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 국영 가스공사 카자가스(JSCNC QazaqGaz)로부터 카라차가나 가스처리시설(Karachaganak Gas Processing Plant) 프로젝트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서쪽으로 약 1260km 떨어진 카라차가나 복합단지 내에 연간 50억㎥ 규모의 원료가스를 처리하는 가스처리

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 및 구매 역무를 수행한다.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EPC(설계·구매·시공) 기업 시침(SICIM)의 현지 법인이 시공 컨소시엄 파트너사로 참여해 안정적인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가스처리 플랜트 수행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CIS 지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